



8면
'국민연금공단 연수원' 정읍에 등지른다

전주매일

2020년 11월 4일 수요일 (음 9월 19일) 제265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국가 탄소산업 컨트롤타워로 '우뚛'

새만금에 '복합 말 산단' 추진관련 전문가 토론회

탄소융합기술원,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 확정
경쟁 상대인 경북보다 탁월... 道 육성지의 '결실' 이르면 내년초 정식 출범...산업생태계 구축 매진

(제)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정부로부터 '한국탄소산업 진흥원'으로 지정받아 대한민국의 탄소융복합산업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련 산업을 이끌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운영준비위원회(위원장 박진규 산업부차관, 이하 운영준비위)를 열어 전주에 소재한 (제)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의결했다. <관련기사 2·3·16면>
산업부는 운영준비위원회 위원 5명으로 평가단(단장 박종래 서울대 교수)을 구성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비롯한 진흥원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 현장 실사, 이달 2일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단의 평가결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진흥원으로서 갖춰야 할 효율성, 준비성, 미래 비전 등이 경쟁상대인 경북 하이브리드연구원보다 탁월해 진흥원으로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역량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탄소융복합 국가산단 지정, 국내 최초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탄소융복합 분야의 인프라와 그간 지역산업에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성장시켜온 전북도의 적극적인 육성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결과 알려졌다.
아울러, 탄소산업 전문가와 기업인들도 (제)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연구개발 성과 및 기업 지원 실적 그리고 R&D 및 시장 개척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성 분야에 있어 타 후보 기관보다 매우 월등해 진흥원으로서 최적의 기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향후, 운영준비위는 의결 결과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행정 절차 등을 진행해 이르면 내년 초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정식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이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을 계기

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방침이다.
지난 15여년간 전북도는 관련 전문가 그룹과 함께 탄소산업을 100년 미래 먹거리로 인지하고, 불모지 같은 탄소산업의 육성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
하지만 전북의 육성민으로는 부족해 지속적으로 국가 차원의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제기하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설득해왔으며, 이제야 그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도는 이번에 지정된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진흥원이 조기에 인차도록 행정자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며, 관련 기술 개발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매진해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북연구개발특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북분원 등 연구 기반과 탄소특화 국가산단,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등 기업 집적화 기반(인프라)을 활용한 연계 사업을



송하진 전북도지사(가운데)와 김성주 국회의원, 김승수 전주시장은 3일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상용화기술센터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 성공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발굴하고 진행하며 전북을 세계적 수준을 갖춘 우리나라 탄소산업의 수도로 조성해 전북경제를 대도약 시킬 계획이다.
전주시장 시절부터 탄소산업을 이끌

어온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으로 전북이 씨를 뿌린 탄소산업이 혁신을 통해 국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

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수도로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성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종모)은 3일 전주기전대학 재활습지에서 방조제 준공 10주년을 기념한 릴레이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의 다섯 번째 행사로 '새만금 말(습지)산업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내외 말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새만금에 특화된 말 산업 육성방안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말 산업은 레저산업 성장에 부응하고 성장잠재력과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인 만큼 새만금 말 산업 특구지정, 내부개발에 맞춘 단계적 개발전략 수립,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연계해 농생명용지에 대규모 말 산업 단지를 포함하고, 관광레저용지와 연계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배호열 개발사업장장은 "오늘 논의된 좋은 의견을 토대로 농림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복합 말 산업 단지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토론회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을 요청했다.
/유호성 기자

강영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새뜰유치원, 인근 초교에 유아 분산한다

공사 지연, 내년 3월 개원 전 준공 불확실... 늦으면 9월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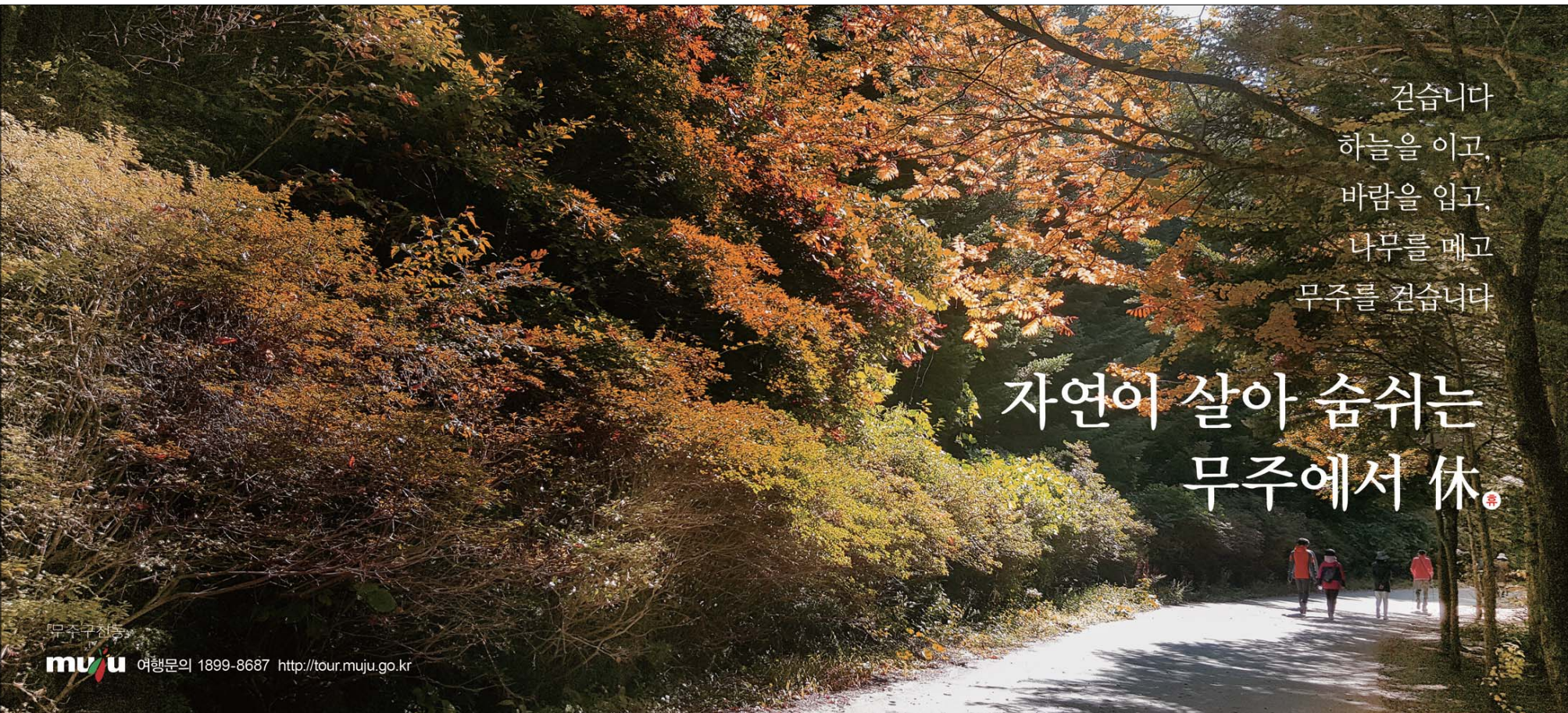
전주새뜰유치원이 유아 분산 수용을 추진 중이다.
전북교육청은 2021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추진 중인 혁신도시 내 전주새뜰유치원 신축공사가 늦어지고 있어 유아들을 인근 2개 초등학교에 임시 분산 배치한다고 3일 밝혔다.
전주새뜰유치원은 혁신도시인 전주시 중동 808번지에 일반학급 12학급, 특수학급 3학급 규모(모집정원 216명)로 2021년 3월 개원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내년 3월 개원 전까지 준공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혁신도시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주새뜰유치원의 개원을 연기하지 않고 2021

년 3월에 정상 개원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이르면 7월 늦으면 9월까지 인근 전주민성초등학교와 전주홍산초등학교에 유아들을 분산하여 배치할 계획이다.
전주민성초등학교는 공동주택임주로 유입 학생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2021학년도 51학급 편성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에 전주새뜰유치원이 개원하면 전주민성초병설유치원을 휴원

하고 유치원 교실을 보충교실로 전환해 과밀을 해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주새뜰유치원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전주민성초병설유치원을 전주새뜰유치원 2학급으로 임시 배치할 예정이다.
전주홍산초등학교는 동일 부지내 단설유치원(전주홍산유치원)이 있어 식생활관과 유치원 놀이시설 이용이 용이하고, 초등학교생과 동선을 분리

할 수 있는 빈 교실 확보가 가능해 5학급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전주새뜰유치원과 직선거리 3.2km, 통학거리 5.8km에 위치(승용차 기준 11분 소요)하며, 임시 배치 기간에는 통학버스 2대를 배치해 유아들의 통학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전주교육지원청, 전주민성초등학교 홈페이지, 현수막 등을 활용해 전주새뜰유

치원의 임시 배치 상황을 적극 안내해 전주새뜰유치원을 지원하는 학부모들이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시 배치 학교의 유휴교실에는 교재교구 등을 구비해 유아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 임시배치 기간 동안 유아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며, "초등학교 내 학급을 운영하는 만큼 임시 배치 학교인 전주홍산초등학교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기존 초등학교와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초등학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견습니다
하늘을 이고,
바람을 입고,
나무를 메고
무주를 견습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무주에서 休